

北軒 金春澤의 濟州流配漢詩考

梁 淳 珽

1

조선조 519년의 역사 가운데 340년간이나 당과 싸움이 점철되었다. 그 당과 싸움의 역사 가운데도 가장 치열하던 때가 이른바 숙종조 시대라 하겠다. 조선조 三大 宮中小說의 하나이며, 고전소설인〈仁顯王后傳〉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소설의 형성적 시대배경과 조선조의 대석학인 尤庵 宋時烈이 예문시비로 싸우고 때로는 이에 이기고 끝내는 이것 때문에 실각하는가 하면 장희빈 소생의 세자 책봉 때문에 제주섬에 유배되고 이어 전라도 정읍에서 사사당한 비극적 사건은 바로 숙종조 시대의 일이었다.

그리고 숙종이 인현왕후 민씨를 폐위하게 되자 이에 반대했던 金鐵龜는 제주섬에 유배당하게 되는 불운을 겪었다. 臺時戀君에의 충정을 비롯하여 유배 생활의 갖가지 내용을 노래한 북헌의 유배문학은 주로 제주 유배생활 때에 창작된 것이다.

이 글은 〈北軒集〉에 수록되어 있는 〈囚海錄〉 가운데서 가장 유배적 성격이

잘 나타나 있는 유배한시를 가려내어 이것을 분석 고찰하여 그것이 지니는 국문학적 위치를 정립하려고 하는 기초적 작업이 된다고 하겠다.

2

金春澤(1670-1717)은 조선조 현종과 숙종 때의 사람으로 문신이다. 그의 자는 伯雨이요, 호는 北軒이며 시호는 文忠, 본관은 光山이다. 숙종의 國舅로 영돈령부사 광성부원군 金萬基의 손자요, <九雲夢>으로 널리 알려진 당대의 국문학의 대가인 金萬重의 從孫이고 조선조후기의 당대 최대의 유림이었던 沙溪 金長生의 高孫이다. 그리고 제주섬에 유배된 적이 있는 行戶曹判書 金鎮龜의 아들이요, 숙종의 첫 왕후인 이른바 仁敬王后는 그의 고모이다. 仁敬王后가 숙종 6년(1680)10월에 춘추 20세로 승하했는데 복헌이 나이 11세 때의 일이었다. 복헌의 가계는 혼작과 현직의 혁혁한 권문세가였다.¹⁾ 복헌이 약관 20세가 되던 해인 숙종 15년(1686) 정월에 張昭儀가 낳은 왕자 ㄱ을 세자로 책봉하고 장소의를 희빈으로 삼았다. 같은 해 5월에 숙종이 인현왕후 민씨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왕비에 책봉하려 했는데 남인이 이에 동조하고 집권하게 되자 이에 서인이 반대가 맹렬하였으나 서인은 실각하게 된다. 이를 己巳換局이라 한다. 이에 兪斗寅, 朴泰輔 등 80여명이 왕비폐위 반대상소를 올렸다. 바로 우암 송시열이 남인의 배척을 받아 제주에 유배되어 유배지 제주섬에서 서울로 암송도중 전라도 정읍에서 사사된 직후였다. 이 무렵을 전후해서 복헌의 종조부인 西浦 金萬重도 疏論하다가 죄를 얻어 남해에 유배되었다. 이에 따라 복헌의 가계는 극심한 화를 입어 부친 金鎮龜는 80인 상소문 사건에 연류되어 제주목에 유배당하게 되고 격거장소는 가락천 부근에 있었던 東泉洞 民家에 정해졌다. 그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여러 차례 유배당하고 투옥되었다.

부친 金鎮龜의 제주섬 유배는 제주유림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였고, 복헌이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까지 그 덕이 미쳤을 정도였다.

1) 「光山金氏族譜」, 「萬姓大同譜」 참조.

숙종 20년(1694) 甲戌獄事로 남인이 물러나 西인이 집권하게 되어 老·少論으로 대립 분열하기에 이르자 북헌은 노론에 속하였는데 숙종 23년(1697)에 소론의 탄핵으로 金川에 유배당하였다. 숙종 27년(1701) 巫蠱의 옥사로 부안에 유배되고 숙종 32년(1706)에 해남에 유배되었고 같은 해 8월에 남인 李潛의 상소로 새자(경종)를 모해하려 한다는 무고를 받고 죄가 가중되어 제주섬에 유배당하였다.²⁾

지난 해 기사년(숙종 20, 1689)에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간신히 면허 제주에서 격거하였는데 6년이 지난 갑술년(1694)에 다시 억울함이 밝혀져 조정으로 돌아가셨으며 11년이 지난 갑신년(1704)에 운명하셨다. 3년이 지난 병술년(1706)에 불초 춘택이 앞 간신무리의 간교에 말려들어 상복을 채 벗기도 전에 제주로 유배되니 그 실로 16년만이다. 이미 배를 내려 섬에 들어가나 州使가 공문을 살펴보고 장차 나를 민가에 편히 안치시키려고 살고 싶은 곳을 물으니 내가 대답하기를 오직 돌아가신 아버지가 일찍 살던 곳을 원한다고 하여 그 곳을 거처로 삼았다. 제주가 땅을 이름이 바닷길로 1천리나 되므로 풍파의 걱정이 헤아릴 수가 없으므로 아주 심하면 답답하게 안개가 끼는 것이 사람이 전달 바가 아님은 말할 것조차 없다. 또한 섬 사람들의 풍속이 야속하고 핍박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가난하고 거칠다.³⁾

북헌이 제주유배생활의 실상을 그린 그의 〈濟州東泉謫舍記〉중 앞부분의 글이다. 북헌은 선친 김진구가 16년전(숙종 15, 1689)에 유배생활하던 제주목 가락천가 州妓 吳眞의 집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제주섬은 북헌의 가족에게는 2대에 걸친 유배지였다.

2) 李達昌 「黨議通略」, p. 336. 「肅宗實錄」 卷44, 32년 丙戌 8월조 “上日以濟州地定配可也”

3) 「北軒集」 卷13, 〈濟州東泉謫舍記〉 “往歲己巳先君子爲任人所構謫濟州越 六年甲戌當 更化還朝越 十一年甲申捐館舍越三年丙戌 不肖春澤又被前任人之 黨之齟齬未及釋衣而謫于濟其鉅昔之來觀實十有六年也 既下舟入城則州使按法府關文將安接余舍于民舍問所欲居曰其惟先君子之嘗所居焉者乎遂就而居之濟之爲之海道一千里風波之虞不測至則炎蒸霧雨非人 所堪無論其氓俗陋薄生理艱荒”

숙종 33년(1707) 8월 內官 金善弼의 노복인 朴義良의 모함으로 그해 9월 서울로 압송되어 추문 끝에 혐의가 없어 다시 제주섬에 유배되었다.

그의 두번째 유배장소는 대정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任徵夏의 <西齋集柑錄>에 북한이 적거중이던 때의 石禮라는 老妓가 찾아와 <美人曲> 한 곡을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서재는 영조3년(1727) 대정현 감산리에서 적거한 사람으로 북한의 매부에 해당된다. 북한은 松江 鄭澈의 <前後 思美人曲>의 미인계보에 해당되는 <別思美人曲>을 창작한 바가 있다.⁴⁾

숙종 36년(1710) 6월 閔眞厚의 상소로 감형되어 臨陂로 유배생활이 옮겨져 숙종 36년(1710)에 석방되었다.⁵⁾ 곧 다섯 차례에 걸쳐 유배당하고 세 차례나 옥고를 치루니 물리쳐 쫓기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기를 무려 30여년 하루 한 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 북한의 제주섬 유배기간은 숙종 32년(1706)에서 숙종 36년(1710)까지 곧 그의 나이 37세에서 41세 때의 일이다.

북현은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文才가 비범하여 기억력이 있어 뜻을 가다듬어 글을 지으면 시는 깊고 넓은 바다처럼 전아하였다. 일찌기 文谷 金壽恒이 그를 시험하고자 詩題를 내주고 長律을 짓게 하였다니 해가 지기전에 8편의 長律을 지었다고 한다. 그는 그의 종조부 西浦 金萬重이 국문소설 <謝氏南征記>를 창작하자 이를 漢譯할 정도의 文才였다.

또한 마음 속에 품은 뜻과 생각이 초월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사람됨이 無狀하여 세인이 罪人으로 여기니 都下에 하루를 머물면 하루의 해가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받기도 하였다.⁶⁾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奇人이라고 일컬었다. 북한은 제주섬에서의 유배생활을 통하여 각시라는 여인에 북한 자신의 충정을 의탁하여 애소하고 유배지에서 잃어버린 군왕의 총애를 다시 회복하려는 뜻에서 우시연군예의 단심을 나타낸 유배가사 79節 158句 1114字로 된 <別思美人曲>을 지었고, 유배시문을 <囚海錄>이라 하여 수록

4) 「北軒集」 卷16, 論詩文 3조 “余來濟州又以謫作別思美人曲 追和松江兩詞”

5) 「肅宗實錄」 卷48, 36년 庚寅 6월조 “上命上陸”

6) 「肅宗實錄」 卷44, 32년 丙戌 8월조

하였고 鄭松江의 〈將進酒辭〉 등을 한역하기도 하였다. 〈수해록〉의 권16 〈論詩文〉에 정송강의 〈前後思美人曲〉과 金西浦의 〈謝氏南征記〉에 대한 평론이 수록되어 있다. 숙종 43년(1717)에 졸하니 북헌의 나이 48세 때였다.

3

북헌의 제주 유배한시는 크게 그 주제적 내용을 셋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 자탄 애소와 우시연군, 둘째 은둔도피와 자연애, 셋째 연민의 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1. 自歎哀訴와 憂時戀君

유배지에서 자기의 불우한 처지를 생각하며 신상을 자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한시를 예거할 수 있다.

濟州雜詩 其十二

疾病三秋劇	질병은 3년 동안 깊어만 가고
流遷二載強	귀양살이 두 번이 옮겨졌구나.
海山當座近	파도 높은 해변가 자리하니
霜髮共秋長	흰 머리와 함께 가을은 깊어만 간다.
幽蛩同蛇虺	지렁이 들끓는 곳에 갇힌 신세여
飛膽愧驪驥	좋은 말 타고 뛰어 달릴 날을
焉能乘逸興	언제면 편한 몸으로 흥을 따라
杖屨人青蒼	집신 신어 지팡이 짚고 푸른 바다를 건너가리

〈北軒集 卷2, 囚海錄〉

세자 모해혐의를 받고 제주섬에 유배당한 북헌의 정신적 상황을 노래한 것으로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자신의 신상을 자탄한 정감이 잘 나타나고 있다.

제주섬에 유배당한 복헌은 3년간 혼자서 유폐된 유배생활 가운데 깊어가는 가을이면 몸이 병약해져서 그 언제면 이 죽음의 땅에서 석방이 되어 이 해원처럼 넓고 깊은 제주 바다를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의 신상을 자탄하고 있다. 이어

書 懷

客裡頻驚節序催	귀양와서 자주 바뀌는 질서에 놀라며
居然三載大荒隈	귀양살이 3년에 크게 거칠어질 뿐
鏡添白髮迎春在	거울 속 백발에도 봄은 오거만
座有青燈守歲廻	청등 아래 선달 그믐밤 지새던 일들
南海風濤無日了	남해의 풍파는 그 칠 날이 없구나.
故園花柳僞誰開	고향의 화류든 누구 위해 피었는가
橘林才子鷄林李	귤림의 재자와 계림의 이씨랑
舊感新愁共一杯	지난 감회 새 수심에 한 잔을 함께 하리.

위의 칠언율시 〈書懷〉에서도 유배지에서 덧없이 흐르는 질서의 뒤바뀜 속에 거칠 수 없는 서러움과 견디기 어려운 세월, 그리고 고통스러운 유배생활에 직면한 우울한 심정과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신상탄의 시적 분위기가 매우 짙게 감돌고 있다. 이어 7언절구 〈偶吟〉에서도

偶 吟

殘生寂寞滯蠻村	남은 목숨이 쓸쓸하게 蠻村에 머물러
每倚孤城望海門	매양 孤城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네
落木寒潮愁絕處	낙엽지고 찬파도 치며 시름마저 끊어진 곳
秋來未有可招魂	가을이 와도 아직 가히 초혼할 수 있잖구나.

계절이 바뀔에 따라 마음 속 깊이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유배생활의 서러움, 불안, 고독, 절망 등으로 말미암아 불운하게 실의에 빠져든 자탄의 정감을 잘 표백하고 있다. 이어 7언율시 〈謫舍〉에서 보면

謫 舍

謫舍疎靡傍古城	적사는 엉성한 울타리 옛성 곁에 있어
有時登眺遺孤情	이따흠 올라 바라보며 외로운 정을 보이네.
漁人小艇乘潮落	어부들의 작은 배는 썰물에 어울리고
杵女淸歌向月明	방아짚는 여인들은 맑은 노래 달빛과 어울리지만
家在北京書未達	저 북쪽 서울집 소식은 아직 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秋來南海瘴猶生	남쪽바다에 가을이 오니 오히려 장습한 일이 생기는구나.
虞翻浪欲逢知己	험한 파도를 걱정함은 자기를 만나려는 욕심인데
只合相隨亦服氓	다만 서로 풀웃임을 백성을 쫓는다.

유배지 엉성한 울타리 옛성 부근의 謫舍에서 집안 소식을 접하지 못해 불안 해 하고 외로운 심정에 젖은 자신의 신상을 자탄한 정감을 노래하고 있다. 이어 7언전구 〈暮春漫吟〉 3수에서도

暮春漫吟 三絶句

桃花飛散濟州城	복숭아 꽃잎은 날려 재주성에 흩어져
正值攀山曉雨晴	바로 한라산을 마주하니 아침비는 개였구나.
不識賓鴻何意緒	아직 못게라, 나그네랑 기러기는 무슨 뜻 퍼려나
北歸猶作斷腸聲	북녘으로 돌아가며 오히려 애끊는 소리만 짓누나

其 二

看盡花開又鳥飛	꽃피고 새나는 것을 보건만
大杯未足解愁圍	큰 술잔은 아직 족히 귀양살이를 달래지 못해
寄言春色堂堂去	봄 소식은 당당히 지나건만
何事爾歸吾不歸	무슨 일로 너는 돌아가고 나만 남느냐.

其 三

遠客逢春苦憶家	유형수 봄이 되니 집 생각에 괴롭고
春歸更奈客愁加	봄 돌아와 또 어찌 나그네 설움 더하겠는가
酒醒夢能無餘事	술 깨고 꿈 깨면 남은 일 없을 터인걸
唯倩兒童拾落花	눈 예쁜 아이나 시켜 떨어진 꽃 주련다.

위의 시 역시 계절이 바뀔때 따라 마음 속 깊이 느껴지는, 꺼질 수 없는 불안 고독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처지를 자탄한 정감을 표출하고 있다. 곧 “北歸猶作斷腸聲”과 “何事爾歸吾不歸”에서 기러기 북녘으로 돌아가면서 우는 소리가 남의 애를 끊나니, 무슨 일로 너는 돌아가고 남달리 나만 유배지에 남느냐는 심정에서 충분히 그의 심화된 자탄을 읽을 수가 있을 것이다.

山池七歌 其五

有妻有妻身姓李	아내다운 아내의 성은 이씨요,
百年相從憂患裏	백년간 상종하려던 게 우환 속이로구나.
今年且欲渡海來	금년에도 또 바다 건너 오시려고
聞道奴訓賣東市	듣건대 팔찌 비너들은 시장에 내다팔았다는데
風波瘴毒人不堪	풍파와 장독은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렵거늘
爾有何辜同我死	그대는 무슨 허물로 나와 함께 죽으려는가.
嗚呼五歌兮歌轉悽	아아, 다섯째 노래여, 도리어 슬픔으로 가득하니
但期他生作夫妻	다만 우리 저승에서 다시 부부의 연을 기약할까나.

위의 〈山池七歌〉는 유배생활과 영어생활로 시종하는 자기로 말미암아 일생을 우환과 고독 속에서 살며 또 외딴 섬 유배지까지 찾아온 조강지처가 너무도 가엾고 미안하여 읊은 것이다. 곧 이승에서는 비록 우환과 이별 속에서만 살아왔으나 훗날 죽어서 저승에 다시 환생하여 그 때만은 우리 둘이 다시 지아비와 지어미가 되어 근심과 별리가 없이 재미나게 지내보자는 뜻으로써 실로 사랑하는 아내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애끓는 자탄의 심정을 표백하고 있다.

이 북헌의 시는 1840년 尹尙度의 옥사 재론으로 말미암아 유배된 秋史 金正 禧가 유배지 대정현에서 유배생활중 죽은 아내 禮安李氏에게 준 7언절구 <配

所輓妻喪)이란 시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작품이라 하겠다.” 위의 〈山池七歌〉의 시의 형식은 7언으로 되었는데 7행만이 8언으로 되어 있음이 특이하다.

한편 당쟁으로 말미암아 군왕의 충애를 잃은 벼슬살이하던 처지로서 유배지에서 못내 연군에의 충정을 노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한시가 있다.

濟州雜詩 其九

聖朝恩及遠	성조의 은혜, 제주섬까지 미치니
擘岳比應低	한라산이 그 은혜에 견주어 응당 낮구나.
移粟霑紅腐	곡식을 옮겨 붉게 썩은 곡식을 채우며
領綸降紫泥	綸을 베물고 紫泥를 내렸구나
九防分險阻	모든 곳의 방비 험난하게 나뉘고
三色列東西	삼읍은 동서로 벌려 있구나.
萬世期酬答	만세에 보답함을 꾀하여
絃歌興鼓鼙	노래 絃 소리와 더불어 북소리로 가득하구나.

위의 7언율시 〈濟州雜詩 其九〉는 조선조의 형률에 따라 流 3천리 절도 위리 안치를 당하여 유배되는 최악의 유형지, 왕도에서 멀리 떨어져 살기 힘든 제주섬에 버림받고 불묘지인 죽음의 땅에도 성은이 골고루 미치기를 청송하여 연군에 충정을 노래하였다. 그의 7언율시 〈山池七歌〉에서 보면

山池七歌

有客有客山池客	여기 길손되고 저기 길손되다가 산지의 길손됐는데
一身百罪凡四謫	한 몸에 온갖 죄 불어 무릇 네번째 적거일세.
百罪在身不自知	큰 죄 있다거만 스스로 무슨 죄인지 알 수 없어
但道蒼天照心赤	단지 창천에 마음의 진실을 비추어 달라고나 할까.
汪汪南溟幾萬里	출렁이는 남쪽 아득한 바다가 무릇 몇 만리일까마는
聖恩爲大南溟窄	성은은 하도 커서 남쪽 아득한 바다가 작은 듯하구나

7) 「阮堂先生集」 卷9, “那將月姥認冥司 來世夫妻易地爲 我死君生千里外 使君和我此心悲”

嗚呼—歌兮不成歌 아아, 첫 노래여 노래를 채 이루지도 못하였는데
 中夜撫枕淚滂沱 한밤중 배갓머리 이루만지고 눈물만 끝없이 흐르네.

억울한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조금도 임금을 원망치 않았던 것으로 충념애군의 심정을 곡진하게 표백하고 있다.

2. 隱遁逃避와 自然愛

유배적 상황에 직면하여 격선한 당파 싸움으로 말미암은 상처와 소외된 자신을 달래기 위해 현세의 일체에서 은둔도피하려는 심정과 자연에의 몰입으로 자연애를 노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한시가 있다.

山

我坐此山中 내가 이 산 속에 앉아 있나니
 山於我何有 산이 내게 어찌 싫증이 있으랴
 無頭一穹窿 머리없이 오로지 둥그스름히 솟아 있으니
 知在後峰後 있음을 안 뒤에라야 봉우리가 뒤따르누나.

북헌의 5언절구 〈山〉은 제주섬에 있는 오름〈山〉의 특성을 잘 표현한 것인데, 이러한 자연을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것은 유배지에 와서야 비로소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내가 곧 자연이고 자연이 곧 나이며 내 속에 자연이 있고 자연 속에 내가 있어 물아일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일체의 주관, 사람의 욕심은 끼어들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자연에의 몰입에 젖게 되고, 자연을 사랑하게 되며, 비록 참아 견디기 힘든 유배생활에 직면한 불안한 정신적 상황이었다고 해도 진정으로 和靜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의 그의 5언절구 〈海〉에서는

海

我雖在人間 내 비록 사람들 사이에 있거만
 焉識有天地 어찌 깨달아서 하늘과 땅을 소유하라
 不敢夜開窓 감히 밤들어 창을 열지 못함은
 恐鷺群龍睡 못용들의 잠을 놀래 깰가 두려함이네.

넓은 바다에 비해 외소하기만 한 사람, 어찌 깨달아서 자연에 동화할 것인가. 제주 밤 바다는 밤이 깊어갈수록 고요하기만 하여 못용들의 잠이 잠이 깰가 두려워 창문을 열구 없다. 제주 밤 바다의 신비로운 정경을 표백하고 있다. 이어 그의 5언절구 <泉>에서는

泉

清泉湧然出 맑은 샘이 팔팔 솟아 나오니
 大旱不能枯 큰 가뭄에도 능히 마르지 않으리
 若變作春酒 만일 변하게 하여 봄술을 만든다면
 忘愁仍忘吾 시름 잊고 또 나라 나조차 잊을 걸

맑은 샘물로 봄술을 만들어 이 술로 시름도 잊고 또 나 자신마저도 잊어 버리고 싶은 심정. 이는 유배인이 겪은 정신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破酒로 은둔한 울적한 심정을 달래 보고자 한 노래였다. 이어 그의 5언절구 <石>에선

石

有石座斯可 돌이 있어 여기 앉을 수 있네
 何須鬻髓香 어찌 꼭 髓香만을 말을 건고
 長教陶令醉 길이 도연명과 같이 취하게 하고
 勿化初平羊 초평의 양처럼 되게는 말지니라.

제주의 <三多>중인 石多의 돌을 노래한 것이다. 돌에서 어찌 꼭 髓香만을 맡을 것인가. 길이 陶潛으로 하여 함께 술에 취했다해도 初平이 하얀 돌을 보고 “양아, 일어나거라”고 하자 모든 돌들이 변해 수만 마리의 양으로 되었다는 故事처럼 초평의 양처럼 되게는 말자고 노래한 것이다. 石多의 돌을 보니 初平의 故事가 생각키운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松

最愛短短松	가장 아끼는 건 작디 작은 솔이거늘
介然雜木中	곳곳이 잡목 속에서도 두드러지게 보이네.
玄冬霜雪後	한겨울 눈서리 내린 뒤에도
留汝伴衰翁	오롯이 남은 너, 이 쇠잔한 늙은이를 벗해 주는구나.

북한의 5언절구 <松>에서는 비록 작디 작은 솔이건만 여러 잡목 속에서도 곳곳이 뿌리내려 변함없이 두드러지게 자라고 있는 소나무의 의지를 통해 자신도 유배지에서 늙고 쇠약한 몸을 소나무처럼 오롯이 남아 있고자 노래한 것이다. 동시에 소나무를 통해 節義念도 표백하고 있다.

孤山 尹善道の 五友歌 중의 水, 石, 松과 대비해 볼 때, 孤山의 경우 물은 선비의 벗으로 말없이 깨끗하게 흐르는 물의 특성을 노래하였는가 하면, 北軒의 경우 맑은 물로 술을 만들어 그 술을 통해 울적한 심사를 달래어 보겠다는 정감을 노래하였다. 그리고 孤山의 경우 돌은 말없이 자리하고 있는 바위를 노래하여 선비의 자세로 비유하였는가 하면, 北軒의 경우 술취한 연후에 도처에 있는 돌을 양이 되도록 한 故事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여 노래하였다. 한편, 孤山의 경우 솔은 소나무의 常靑을 노래했는가 하면 北軒의 경우 소나무를 빌어 節義를 노래하고 있다.

조선조의 선비는 대체적으로 四君子를 좋아했고 그 사군자를 통해서 자신의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소재로 사랑하였다. 특히 선비들이 역경 속에서 또는 유배지에서 자신의 고통과 고독을 사군자 속에 담아 예술로 승화시켰는데 9년 간의 제주 유배생활중 추사 김정희가 20년만에 붓을 들어 그린 <不作蘭>과 불

우했던 시절에 대원군이 그린 蘭은 유명하다. 그러나 북한은 사군자를 통해 노래한 것이 아니라 <山> <海> <泉> <石> <松> <앵화> <포도>를 통해 노래하고 있어 그만큼 유배지의 자연을 시의 소재로 다양하게 취재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일이다.

3. 憐憫의 情

유배생활을 통해 유배지 주민들의 생활고를 보고 연민의 정을 노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한시가 있다.

濟州所見

靑木綿裙短布褲	색바랜 찢어진 치마를 몸에 두르고
癸田閻氏淚潛吞	쫓田의 아낙들은 눈물로 사는구나.
明朝約伴攬墮公	이른 아침 대바구니를 들고
採得蛙頭首菴根	야산에서 풀뿌리를 캐며 연명하네.

위의 7절구 <濟州所見>에서는 북한이 유배생활을 통해 제주섬의 아낙네들의 매우 어렵고 딱한 생활을 직접 보고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정감을 표출하였다. 이른바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여 연민의 정감을 토로한 것으로 제주섬의 아낙네들이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생활하는 모습, 못 입고, 못 먹어서 풀뿌리를 캐어 연명하는 비참한 생활고를 표백하여 연민해 하고 있다. 이어 그의 5언율시 <濟州雜詩 其十八>에서 보면

濟州雜詩 其十八

惑有宦遊客	여기에 부임해 올 관원들은
留連不憶歸	머물고 돌아가려 하지 않는구나
醇醪添氣象	아름다운 술로 흥을 돋구고
紅粉倍光輝	미녀들이랑 빠져들어선

良馬常多取	언제나 하듯 양마를 많이 빼앗으며
潛珠亦暗飛	진주를 또 몰래 뇌물로 빼앗는다.
島民何所望	섬사람들, 무엇을 바라며 살리
御史有霜威	위엄있는 어사 출두는 언제쯤이라.

북헌은 제주목에서의 유배생활 중에서 제주 섬사람들이 “良馬常多取 潛珠亦暗飛”하는 그 무시무시한 관원의 횡포에 시달리고 괴로움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폭로하기도 한다. 이것은 제주 섬사람들의 뼈저린 아픔을 함께 하는 북헌의 역사의식의 일면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조선조의 유배인사 중에 丁茶山은 유배지 전라도 康津 사람들의 어려움을 <哀絕陽>과 <田間紀事> 등을 비롯한 많은 시를 통하여 사실적으로 폭로 고발하여 처참하게 고생하며 유배지 현지인들과 함께 하는 역사의식을 보여 주었다고 한다. 북헌의 경우 丁茶山보다 한 시대를 앞서 官의 부정을 폭로하고 연민해 하는 역사의식의 소유자였다. 이어 그의 5언율시 <濟州雜詩 其十九>에서 보면

濟州雜詩 其十九

彈丸孤島內	탄환처럼 외딴 섬 안에
民事自艱難	백성들의 생활 가난뿐이네.
不料秋蝗作	가을엔 병충으로 농사가 안되고
還承夏雨乾	여름엔 장마 가뭄으로 연이었던다.
逐臣江水遠	멀리 강수가의 귀양살이의 몸
萬履曉霜寒	찬서리가 내리면 내 마음만 아프다.
向者祈讓苦	풍년이 되어지라 빌어본다.
村村設築壇	마을마다 제단 쌓으니 그 심정 애달프구나.

이러한 제주섬 사람들에 대한 연민은 방관자적이 아니라 현실인식을 통한 주체적인 관심에서 우러나온 진정을 표백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주섬은 척박한 땅으로 농사도 제대로 아니되고 섬사람들이 해마다 식량난으로 섬을 떠나는 출륙의 현상은 오래 계속되자 인구의 격감 현상이 일어나 근

200년 동안 본토로 출륙하는 일을 금하기도 하였다.⁸⁾

이러한 암흑기에 관원의 횡포가 극심하였으니 제주섬 사람들은 실로 행정부 재 속의 생활 그것이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주섬 사람들은 풍년과 선정을 바래고 염원하는 제단을 쌓아 올렸던 것이다. 끝내 어려움을 함께 하는 위정자는 없어도 그러한 현실을 인식한 복헌이 있었다는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었다. 다음의 7언절구 <絶糧漫吟>에서도

絶糧漫吟

悠悠萬事任天公	느긋이 만사를 하늘에 맡기니
五載窮溟困殺儂	다섯 해 궁한 귀양살이 나를 어렵게 하는구나
更向室人相笑罷	집 람을 향하니 서로 제면적은 웃음 그치나
孟光無粟可親舂	맹광은 조 없어도 손수 방아 쪼었거만

바로 절량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제주섬의 정황을 노래한 것으로서 內在的으로 연민해 하는 정감이 잘 표백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제주섬은 교통이 불편할 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가장 거리가 먼 곳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떤 부정과 탐학을 저질러도 어느 정도 그 관의 횡포가 감추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부임해 오는 武官 守令의 경우 무술에는 뛰어났을 망정 학문적으로는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治民善政보다는 탐욕만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곧 세종 때 金爲民⁹⁾, 高得宗¹⁰⁾, 성종 때 金勿¹¹⁾, 중종 때 金錫哲¹²⁾, 李耕云¹³⁾ 등이 군왕에게 올린 幣瘼狀은 당시의 수령과 토호들에 의한 民瘼을 여실히 예증해 주는 것으로 믿어진다.

8) 朝廷의 論議에 따라 1629년에서 1823년까지 약 200년간 제주인에 대한 出陸禁止 令이 내려졌다.

9) 「世宗實錄」卷36, 9년 6월 丁卯조

10) 「世宗實錄」卷90, 22년 8월 己卯조

11) 「成宗實錄」卷247, 21년 11월 癸未조

12) 「中宗實錄」卷19, 8년 12월 庚申조

13) 「中宗實錄」卷41, 16년 3월 壬戌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주섬의 땅이 원래 화산회토질임으로 농토가 매우 척박하고 환해고도로 태풍의 진입통로인 관계로 해마다 재해와 흉작이 계속되었다. 섬사람들은 항상 기근과 싸워야 했고 생사의 심각한 문제였다. 이러한 섬사람들의 三災(風災·水災·旱災) 어려움을 인식하여 시를 통해서 표출했다는 것은 제주 섬사람들의 삶의 절규를 의식한 유배된 사대부의 마지막 양심의 호소에 의해서였을 것이다.

이어 그의 5언율시 「資糧既盡」에서도 그러한 제주섬 사람들의 생활고는 더 한층 짙게 표출되고 있다.

資糧既盡

我貧欲乞食	내 가난해 구걸하고자 하나
亦無瓢可持	또한 가져다닐 표주박도 없구나
主人數畝田	주인의 몇 이랑 밭이나마
田疇蝗自肥	땅은 척박하고 황충만 절로 살겠구나.
天之所試我	하늘에서 나를 시험하는 것은
固有甚於飢	진실로 굶주림에서 심함이 있구나.
棄置勿復道	버려두고 다시 말하지 말자
商聲聊此詩	가을 소리에 애오라지 이 시뿐이로구나

가난은 나라에서도 구제할 수 없다는 속언이 있다. 가난해서 구걸하고자 하나 구걸하기 위해 가져 다닐 표주박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함이 극심한 지경이다. 유배생활을 어려움을 자탄한 정감도 표출되고 있다고 하겠지만 복헌의 눈에 비친 제주섬 사람들의 생활고에 대한 현실 인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땅은 척박하고 황충만 절로 살찌는 형편이고 보면, 농사는 황재가 극심하고 흉작이 연속될 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주섬 사람들은 가을을 맞이한다. 결실도 없는 그 가을소리에 애오라지 시 한편을 남긴다. 이는 내재적으로 연민의 정을 표현하기 위함일 것이다.

4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선비가 시를 쓰는 의도는 시인 자신의 정신적 정화작용일 수도 있지만 시인은 자기 시의 志向點을 가지려 한다. 도연명은 무릉도원, 두보는 矜恤濟民에 있었다면 김정은 애초에 왕도정치에 실현에 있었으나 그 이상과 좌절을 유배지에서 겪은 좌절·절망 등을 극복하는 시세계와 시정신으로 집중하였다. 북한 김춘택은 거듭되는 숙종조의 정치적 환국에 대응하기도 했고 그런 정치적 갈등과 유배지에서 관의 횡포를 고발하는 역사의식과 인간적 고뇌를 표백하는데 일관하였다.

북한 김춘택의 제주유배한시 중 가장 유배적 성격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그의 <囚海錄>에서 20편을 가려내어 살펴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가 있다.

첫째 북한 김춘택은 文才에 뛰어나고 그의 家系는 당대의 훈작과 현직의 혁혁한 권문세가였다.

둘째 북한의 유배한시는 유배지 제주섬에서 불우한 처지를 생각하며 신상을 자탄한 신상탄이 가장 지배적으로 많다.

셋째 북한의 유배한시는 유배적 상황에 직면하여 격심한 당파 싸움으로 말미암은 상처와 소외된 자신을 달래기 위해 현세의 일체에서 은둔도피하려는 심정과 자연에의 몰입으로 자연을 노래한 것도 많다.

조선조 사대부등의 대체적으로 사군자를 소재로 하여 예술을 창작하였음에 반하여 북한은 유배지 제주섬의 자연인 <山>, <海>, <泉>, <石>, <松>, <앵화>, <포도> 등을 다양하게 시적 소재로 취재하였음을 주목해야 할 일이다.

다섯째 북한은 유배생활 중 유배지 제주섬 사람들의 생활고를 보고 자신의 어려움으로 인식하여 연민의 정으로 노래하고, 관의 횡포를 사실적으로 폭로하여 현실인식이 강한 역사의식을 유배한시 중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복헌은 제주 유배생활기간에 〈別思美人曲〉을 창작했고, 松江 鄭澈의 〈將進酒辭〉를 한역하고 송강 정철의 〈前後思美人曲〉과 西浦 金萬重의 〈謝氏南征記〉를 論詩文에 평할 정도로 文才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일곱째 복헌의 〈囚海錄〉의 온 詩文을 통한 그의 총체적인 문학세계의 이해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는다.